

# 제주Utd 2022시즌 '비상' 예약

### 윤빛가람·최영준 영입으로 정상급 중원 구축 트레이드·외국인 선수 추가 보강 등 광폭 행보

승격 첫해인 지난 시즌 프로축구 K리그1 4위에 올랐던 제주 유나이티드가 새해 '스토브리그'에서 주목받고 있다.

제주는 2022년 벽두 굵직한 '오피셜'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2월 전북 현대에서 뛰었던 베테랑 미드필더 최영준 영입을 발표했고, 다음 날엔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최우수선수(MVP) 윤빛가람이 공식적으로 제주 선수가 됐다.

이어 제주는 6일엔 광주FC의 주

축으로 활약하던 공격수 김주공의 영입도 알렸다.

2021시즌 종료 직후인 지난달 초엔 K리그2 부천FC에서 뛰던 멀티플레이어 안태현도 품는 등 알차게 전력을 보강하고 있다.

영입한 선수 수가 다른 팀보다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면면으로는 현재까지 옮겨온 이적시장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윤빛가람은 리그 우승에 도전한 울산의 주축이었고, 최영준은 전북의 리그 5연패에 힘을 보탠 선수다.

김주공은 지난해 팀은 K리그1 최하위에 머물렀으나 30경기에 출전하며 5골 1도움을 올렸다. 안태현도 부천에서 주전으로 활약했다.

이번 이적시장을 통해 제주의 중원은 윤빛가람·최영준·이창민으로 리그 최고 수준의 진용을 갖췄다.

여기에 제주는 K리그2 대전하나 시티즌과 여러 선수가 포함된 트레이드를 추진 중이고, 외국인 측면 공격수는 꾸준히 스카우트를 각지에 보내 지켜봐 온 끝에 논의를 진행하는 단계다.

이 같은 '광폭 행보'에 제주가 전북 현대, 울산 현대의 '양강 구도'에 올해 균열을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현희 제주 단장은 "우리는 아직 도전하는 팀이다. 우승을 논하기엔 조금 더 머물러야 한다"면서 "경험이나 선수층 등에서 우승을 향한 일련의 과정에 있는 것이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승격 첫 시즌인 지난해 4위로 마무리했으나 중간에 어려운 시기도 있었다. 올해는 일단 상위 스플릿에 안착하고 ACL 자격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좋은 그림일 것 같다"고 말했다.

서귀포의 클럽하우스에서 담금질을 시작한 제주는 이달 17일부터 전남 순천에서 전지 훈련을 진행한 뒤 제주에서 2022시즌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 최단기간 20승 vs 최다 13연승

### 여자배구 현대건설-도로공사 8일 '기록'·'기세' 걸고 맞대결

20경기에서 19승을 거둔 '1위' 현대건설과 최근 12연승 행진을 이어간 '추격자' 한국도로공사가 양보할 수 없는 맞대결을 펼친다.

현대건설과 도로공사는 8일 열리는 프로배구 도드람 2021-2022 V리그 여자부 경기에서 '기록'과 '기세'를 걸고 맞붙는다.

현대건설은 20경기에서 19승(1패)을 거두며 승점 56을 쌓았다.

도로공사는 현대건설의 독주 체제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팀이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11월 21일 KGC인삼공사전을 시작으로 올해 1월 5일 페퍼저축은행전까지 12연승 행진을 벌이며 2위(승점 45·16승 4패)로 올라섰다.

8일 경기에서 현대건설이 승리하면, 현대건설의 독주 체제는 더 견고해진다.

현대건설은 '21경기 만에 20승'이라는 사상 최초 기록에 도전한다.

현대건설이 도로공사를 꺾고 '21경기 20승'에 성공하면, V리그

여자부 역대 최다승(2012-2013시즌 IBK기업은행 25승 5패) 기록 경신도 유력해진다.

V리그 여자부는 '7번째 구단' 페퍼저축은행의 합류로 팀당 경기수가 30경기에서 36경기로 늘었다.

현대건설이 정규리그 마지막까지 기세를 이어가면 단일 정규리그 최다승 기록은 물론이고, 사상 처음으로 '30승' 달성에도 도전할 수 있다. 또한, 역대 최다 경기를 치르면서도 단일 정규리그 최소패(2007-2008시즌 흥국생명 24승 4패) 기록도 넘볼 수 있다.

현대건설의 '20경기 20승' 도전에 발목을 잡은 팀은 도로공사다.

현대건설은 V리그 개막 후 최다인 12연승을 내달렸지만, 지난해 12월 7일 도로공사에 패했다.

올 시즌 현대건설에 유일한 패배를 안긴 도로공사는 8일 현대건설의 20승 달성 저지에 나선다.

올 시즌 V리그 팀 최다 연승은 현대건설과 도로공사가 기록한 12연승이다.

도로공사가 8일 현대건설을 또 한 번 꺾으면, 도로공사는 올 시즌 최다인 13연승 기록을 달성한다.

# 출범 40주년 프로야구... '플레이블'

### 2022 정규시즌 4월 2일 개막 이적생·친정팀 대결 관심 ↑

2022년 한국프로야구 KBO리그가 4월 2일 개막한다.

KBO는 6일 2022 신한은행 솔(SOL) KBO 정규시즌 경기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KBO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은 올해 프로야구는 4월 2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10개 팀이 팀당 144경기, 총 720경기를 치른다. 개막전은 2020년 최종 순위를 기준으로, 상위 5개 팀 홈경기로 편성했다.

단, 서울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는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가 각각 2위와 4위로 2020시즌을 마쳐 4위 LG 대신 6위 KIA 타이거즈가 올해 홈에서 개막전을 한다.

2020년 챔피언 NC 다이노스가 홈 창원NC파크에서 SSG 랜더스와 맞붙고, 잠실에선 두산과 한화 이글스가 격돌한다.

서울 고척스카이돔(롯데 자이언츠-키움 히어로즈),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삼성 라이온즈-kt wiz),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LG-KIA)에서 4월 2일 개막전이 열린다. 김

중국 KIA 신임 감독은 광주 홈에서 '사령탑 데뷔전'을 펼친다.

5월 5일 어린이날 경기는 격년제 편성 원칙에 따라 잠실(두산-LG), 인천(한화-SSG), 수원(롯데-kt), 대구(NC-삼성), 광주(키움-KIA)에서 치른다.

2022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는 프랜차이즈 스타의 이적 소식이 연일 들렸다. 이들의 첫 '친정팀 대결 일정'도 나왔다.

손아섭(NC)은 4월 5~7일 창원에서 전 소속팀 롯데와 '생애 첫 대결'을 펼친다. 4월 15~17일 창원에서는 KIA로 떠난 나성범이 전 NC 동료들과 팬들을 만난다.

박건우(NC)는 4월 26~28일 잠실구장에서 두산과 낯선 대결을 한다. 같은 기간에 대구에서는 박재민(LG)의 '첫 삼성전'이 펼쳐진다. '히어로즈의 상징'이었던 박병호(kt)는 4월 29~5월 1일, 고척돔에서 이정후 등 아끼던 키움 후배들과 마주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년(2020·2021년) 연속 열리지 않은 올스타전은 7월 16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7월 15~21일을 올스타 휴식기로 편성했다.



안벽한 블락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NBA 애크랜트 호크스와 새크라멘토 킹스의 경기에서 애크랜트 카펠라가 새크라멘토 킹스의 베글리의 슛을 막고 있다. 이날 경기는 애크랜트가 108-102로 승리했다.

# 김하성 올시즌 타율 0.234·14홈런

### ZiPS 활용 2022시즌 전망

야구 예측 시스템 ZiPS를 고안한 댄 짐보스키는 박리그 2년 차가 되는 2022년에는 김하성(26·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지난해보다는 나은 성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야구 통계 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은 6일(한국시간) ZiPS를 활용해 샌디에이고의 2022시즌을 전망했다.

ZiPS로 예측한 김하성의 2022년 성적은 415타수 97안타(타율 0.234), 14홈런, 61타점, 11도루, 출루율 0.305, 장타율 0.395다. 대체선수대비승리기여도(WAR)는 2로 예상했다. 평범한 선수보다 팀에 2승을 더 안겨줄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김하성은 117경기에 출전

해 267타수 54안타(타율 0.202), 8홈런, 34타점, 6도루, 출루율 0.270, 장타율 0.352를 올렸다. 팬그래프닷컴이 계산한 WAR은 0.6이었다.

모든 부문에서 박리그에 입성한 지난해보다는 나은 성적을 올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내년에도 유틸리티 내야수 역할을 할 전망이다.

팬그래프닷컴은 2022년 샌디에이고 예상 라인업을 짜며 김하성을 주전 2루수 제이크 크로넬워스의 백업으로 분류하면서도, 김하성의 주 포지션을 '유격수'라고 적었다. 김하성은 3루수로도 뛸 전망이다.

2022년 내셔널리그에 지명타자 제도가 도입되면 김하성의 출전 기회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팬그래프닷컴은 김하성의 '소폭 상승'을 예상했다.

본 광고는 사진심의필 2007-GN1-25-0147

**소리섬 보청기**  
제주시 삼도1동 507-3(2층)  
**TEL.753-5347**

① 소리섬 디지털 보청기는 미국 스타키와 마이크로텍사의 제품을 취급합니다.  
② 소리섬 디지털 보청기는 고객의 청력에 적합한 올바른 보청기 상담 및 A/S를 책임집니다.

■ 신경성, 노인성, 소음성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 상담 가능

오라파출소 터미널 신제주  
←광양 한국병원 →

잔디·돌담·다육식물·선인장  
**착한정원 · 착한다육**

조경설계 시공 감리 **착한가격!!!**

**제주자연조경**

- 실내조경, 정원수정정·병해충방지
- 주택, 별장·펜션조경, 잔디·잡초관리
- 연못, 인공폭포, 잔디, 조경수, 돌담

정원, 조경의 모든것 문의 | TEL : (064)748-0014, FAX : (064)746-9888, H·P : 010-3698-6465